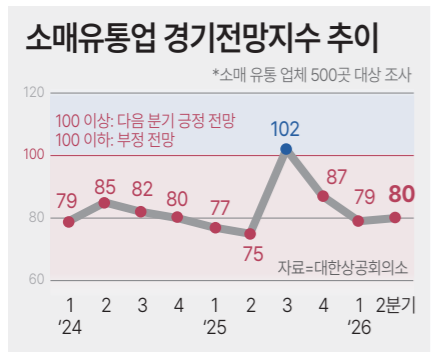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봄 대목 덮친 다중악재... 소비 '꽁꽁'

전쟁·고환율에 수입물가 '껍충' 가격 상승 도미노 파장 커질 듯 유통업체 2분기 실적 '먹구름' 나들이·가정의달·이사·결혼 등 경기 상승 모멘텀에 찬물 우려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통시장에서 쓰세요” 26조2000억 원 규모의 ‘중동 전쟁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망원시장의 한 상점에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이번 지원금은 이달 말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60만 원씩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신용·체크카드 및 지역화폐 방식을 도입해 지원금이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종원 기자

전쟁 여파와 고환율 등으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유통 업체들의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소매 유통업체 500개사를 조사한 2026년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전분기(79)와 유사한 수준인 80을 기록했다.

R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다음 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는 2월 112에서 3월에는 107로 하락했다. 최근 미국이란 전쟁으로 물가가 오르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유통 업체들이 경기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2.3%에서 올해 1월 2.0%로 떨어졌고 올해 2월에는 2.0%가 유지됐으며 3월에는 2.2%를 기록하며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을 보면 1월 2.2%에서 2월 1.8%로 떨어졌으나 3월에는 다시 2.3%로 올랐다.

미국이란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석유류 가격은 3월 전월 대비 9.9% 올랐다. 이에 더해 수입 물가 지수는 2월 대비 16.1% 올랐다. 전쟁 발발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 등이 수입 물가를 크게 끌어올렸다. 수입품의 경우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 가격 상승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또한 커질 전망이다.

유통 업체들도 수입품 가격 상승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조사 대상 기업의 69.8%가 유가와 환율 상승 등에 따른 매입가 및 물류비 상승 부담이 크고 응답했다. 부담이 없다는 응답은 6.4%에 불과했다.

소매 업체별 RBSI를 보면 편의점·슈퍼마켓·대형마트·온라인 쇼핑 등은 모두 기준치 아래에 머무른 반면에 백화점만 115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의는 백화점이 긍정적인 전망을

기록한 원인으로 K소비자 열풍과 원화 약세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것을 꼽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476만 명이였다.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는 늘어나는 반면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떨어지면서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체들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대한상의는 “2분기는 봄철 나들이, 가정의 달, 이사·결혼 수요 등 상승 모멘텀이 있으나 중동전쟁의 영향이 이러한 내수 진작 요인을 제약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이란,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오늘 美와 2차 협상 단힐 판

트럼프, 해상봉쇄 유지에 반발
긴장 고조... 유가 다시 뒤흔들

해방 무드도 잠시, 호르무즈의 긴장 수위가 다시 '임계점'을 향하고 있다.

20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2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것으로 거론된 미이란 2차 담판이 시작 전부터 파행 위기에 놓였다. 로이터와 AP 등 주요 외신은 협상을 하루 앞두고 양측의 대치가 격화되면서 회담 성사 여부가 다시 불투명해졌다고 19일 보도했다.

아바스 아라치 이란 외무장관은 17일 오후 5시경 호르무즈 해협을 한시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상 봉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대응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반발하며 해협 통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영국 해상무력기구(UKMT0)와 로이터 등은 해협의 재통제 직후 인도 국적 유조선 2척에 대한 경고사격과 발포 보고가 잇따르는 등 해협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다고 전했다.

이란 관영 타스님(Tasnim) 뉴스는 18일 밤 “미국이 부당한 전제 조건을 철회하지 않는 한 20일 이슬라마바드 2차 협상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AP 역시 이란 외무차관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새로운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전하면서 2차 협상 성사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는 모습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강경한 입장이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에서 “이란의 해협 개방은 고맙지만, (미국의) 이란 해상에 대한 봉쇄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해협 재봉쇄에 대해 “우리에게 공갈협박(Blackmail)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핵심 요구사항인 농축우라늄의 전량 국외 반출과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 핵시설 해체 등을 관철시킬 것이며, 호르무즈의 개방 여부 등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합의되지 않을 경우 휴전 연장은 없다. 불행히도 시 폭탄을 떨어뜨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20일 미이란 2차 협상의 성사 여부에 대해 단순한 ‘살바 싸움’으로 해석하기에는 양측의 이견이 너무 커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유가의 흐름도 요동치고 있다. 17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한시적 개방 소식이 전해진 직후 WTI 5월 인도분 선물은 종가 기준 83.85달러까지 전날 대비 11.45% 급락했다. 브렌트유 역시 90.38달러로 10% 가까이 떨어졌다.

그러나 트럼프의 강경 발언 이후 장외 거래에서는 WTI 유가 7% 이상, 브렌트유가 8% 이상 다시 급등했다. 블룸버그, 가디언 등 주요 외신은 월요일 개장 시 100달러 돌파 가능성을 높게 예상했다.

주경준 기자 jju@skyedaily.com

‘로또 성과급’ 성에 안 차... 삼전 노조의 탐욕

1인당 5.4억 락파... “더 달라”
30조 손실예상에도 내달 파업
하이닉스와 보상 차이로 생떼

삼성전자 임금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삼성전자 총파업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동조합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초 과반수 노동조합 달성을 선언했다. 이에 더해 △일방적인 취업 규칙 불이의 변경 원천 차단 △조합원 중심 노사협의회 구성 △과반 노조의 협상력을 바탕으로 한 교섭 단계 등을 예고했다.

초기업 노동 조합은 유니온샵 제도 도입도 예고했다. 초기업 노동조합은 “삼성전

자에 입사하는 모든 직원들이 노동조합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유니온샵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과반을 넘어 전제로, 전체를 넘어 제도로 조합원 한 명 한 명이 더해질 때마다 우리의 권리는 더욱 단단해진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는 23일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내 1위를 달성할 경우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하고 메모리 사업부는 경쟁사 이상의 대우를 보장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노조 측에서 거부했다.

업계에서 추산하는 사측 제시안에 따른 메모리 사업부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약 5억4000만 원이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OPI 상한 50%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15%를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제도 개편이 필요한 논거 중 하나로 SK하이닉스와의 보상 차이를 들어 왔다. 이에 사측이 SK하

닉스 이상의 대우를 보장한다고 제시했으나 사측은 특별 포상금 형태의 보상안을 제시한 반면에 노조 측은 제도화를 요구하며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한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16일 수원 지방법원에 노조 파업 사전 금지를 요청하는 ‘위반 행위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맞섰다. 사측은 최승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3월 유튜브 라이브와 SNS 등을 통해 “전 사업장 점거를 확장할 계획이다”라며 “18일만 파업에 성

공하면 백업과 복구까지 한 달 이상 걸려 손실이 30조 원 이상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23일 열리는 노조 집회와 관련해서도 노사간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삼성 초기업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법 제42조 제2항을 근거로 집회 시 인프라 기술 센터 등 인원을 100% 유지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노조는 법률 자문 결과 삼성전자 사업장은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에 맞출 이유가 없으며 사측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오직 ‘부의 지도’ 팬클럽에서만 허락된 명사와의 프라이빗한 시간!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과의 만남,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참여하시는 분들께만 드리는 특별한 대면 세션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당신이 선택한 명사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질문에 직접 답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부의 지도